

## 삼태극(三太極)/삼원태극(三元太極) 문양의 기원에 대하여

우 실 하\*

- |                                |                             |
|--------------------------------|-----------------------------|
| I. 글을 시작하며                     | VI. 태양을 상징하는 ‘日’ 과 ‘𠄎’ 의 차이 |
| II. 당나라 시대까지도 태극(太極)이란 삼태      | VII. 글을 맺으며 ‘𠄎’ 자 형태의 태양상징  |
| 극/삼원태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은 파문(巴紋) · 와문(渦紋) · 삼태극     |
| III. ‘빛날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옛 | (三太極) 문양의 기원이다              |
| 글자 ‘𠄎’ 자                       | <참고문헌>                      |
| IV. 명(明)자의 변화                  | <국문요약>                      |
| V. 맹(盟)자의 변화                   |                             |

### I. 글을 시작하며

‘빛날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옛 글자인 ‘𠄎’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 달빛이 비치는 ‘열린 창문’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 둘째, 12년 마다 제후들을 모아 ‘밝음의 신(明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맹(盟)이라는 행사에서 제단에 올려졌던 ‘소의 귀’를 상형한 것이라는 설, 셋째,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 등이다.

이 글에서는 경(罔) · 명(明) · 맹(盟) · 일(日) 등의 글자 변화를 통해 이런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밝을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공통 기원인 ‘𠄎’자가 태양을 상형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볼 것이다. 특히 ‘밝다 · 빛나다 · 환하다’는 의미

\* 한국항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동양사회사상문화이론 전공(woosilha@hau.ac.kr).

의 ‘㐁’자는 ‘빛’을 발생시키는 ‘불(火)’ 곧 ‘태양 속에 소용돌이치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볼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1) ‘㐁’자의 갑골문과 금문에서 보이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 안에 3~4개의 선이나 C자형 곡선이 둘러져 있는 㐁자 형상’에서 각종 파문(巴紋)이 발생하였고, (2) 이런 파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원 안에 3개의 선이나 3개의 C자형 곡선이 둘러져 있는 㐁자 형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삼태극(三太極) 혹은 삼원태극(三元太極)의 초기 형상이 기원하였다는 점을 밝혀볼 것이다.

## II. 당나라 시대까지도 태극(太極)이란 삼태극/삼원태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태극(太極)’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과 양이 어우러진 태극 곧 ‘음양태극(陰陽太極)’을 떠올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양태극 대신에 흔히 ‘삼태극(三太極)’ 혹은 ‘삼원태극(三元太極)’이라고 불리는 문양이 많이 사용된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사용되는 태극의 모양도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베트남의 전통 북에는 음양태극이 그려져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티베트의 북에는 삼태극/삼원태극이 그려져 있다.

상·주·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는 고고 유물이나 악기에는 삼태극 도형이 대단히 많이 보이는데 반해서 음양태극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상·주·춘추·전국 시대의 각종 고고 유물에서도 삼태극이 그려져 있었다면, 도대체 삼태극 도형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미 다른 논문과 논문들을 통해서, (1) 고대 동양에서 태극이란 당나라 시대까지도 음양태극이 아니라 삼태극/삼원태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밝혀 놓았고,<sup>1)</sup> (2) 이런 삼태극의 논리가 동양음악의 5음 12율의 산율(算律)체계의 바탕이었으며,<sup>2)</sup> (3) 삼태극의 논리는 동북아 샤머니즘의 ‘3수 분화의 세계관

1) 우실하, 「최초의 태극 관념은 음양태극이 아니라 삼태극/삼원태극이었다」, 『동양사회사상』 제8집 (2003), 5~37 쪽

2) 우실하, 「삼태극의 논리와 5음 12율의 산율 수리(數理) 체계」, 『한국음악사학보』 제22집(2004b),

(0-1-3-9-81)'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혀놓았으며,<sup>3)</sup> (4) 이런 '3수 분화의 세계관은 도교나 선도 계통과 우리나라의 대중교 등의 전통종교와 「천부경」·「삼일신고」 등의 민족비서 등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도 논의하였다.<sup>4)</sup>

『한서』, 「율력지(律曆志)」나 『사기』, 「율서(律書)」 등에는 삼태극 관념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들 책에서는 '천지인 3 기를 함유한 1 기'가 태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5)</sup> 구체적으로 보면, 『한서』, 「율력지」 본문에는 반고가 활동하던 후한 초기의 학자들이 태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명쾌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실려 있다.

태극 원기는 셋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하나가 된다(太極元氣, 函三爲一).<sup>6)</sup>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태극 원기'는 '3 기(氣)를 함유하고 있는 1 기(氣)'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삼국시대 위(魏 225~265)나라 학자인 맹강(孟康)<sup>7)</sup>과 당(唐 618~907)나라 초기의 학자 안사고는 아래와 같은 주석을 달아 놓았다

맹강이 이르기를, “원기(元氣)는 자(子)에서 처음 일어나는데, 원기가 분화되기 전에는 천지인(天地人)이 혼합되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子)의 수(數)는 홀로 1이다”고 하였다. 남사고가 이르기를 “함(函)은 함(含)과 같은 의미로 풀이한다. 이후에도 모두 이와 같다”고 하였다.<sup>8)</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태극 원기(元氣)=일기(一氣)는 3기를 함유하고 있

73~113 쪽

3) 우실하, 「동북아 성수(聖數: 3, 7, 9, 81)의 기원에 대하여」, 『단군학연구』, 제10집(2004c), 205-240쪽.

4) 우실하, 「도교와 민족종교에 보이는 '3수 분화의 세계관」, 『도교문화연구』, 제24집(2006), 99~133쪽.

5) 우실하,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 삼태극의 춤, 동양음악』(소나무, 2004a); 우실하, 앞의 논문(2004b), 73~113 쪽 참조

6) 『漢書』, 卷21 上, 「律曆志」 第1 上; 『漢書』(北京 中華書局 1992), 964 쪽

7) 맹강은 『漢書音義』 9권을 지은 삼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 응邵(應邵)·복견(服虔)·여순(如淳) 등과 같이 후한 시대에서 삼국 시대에 걸쳐서 활동한 유명한 주석가다.

8) 『漢書』, 卷21 上, 「律曆志」 第1 上; 『漢書』, 965쪽. 孟康曰, 「元氣始起於子, 未分之時, 天地人混合爲一, 故子數獨一也」. 師古曰, 「函讀與含同. 後皆類此」.

는데, 그 3기는 바로 천지인 3재(三才)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태극 원기가 3기를 함유하고 있다는 삼태극 삼원태극의 개념은 당시에 통용되던 보편적인 태극 이해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삼태극 관념은 한나라와 삼국 시대 그리고 당나라 시대의 학자들에게까지도 보편적인 태극 이해의 방식이었다.<sup>9)</sup>

1기에서 3기로 분화되는 삼태극 관념은 동북방 사머니즘의 ‘3수 분화의 세계관’의 산물이며, 삼재론의 바탕이라는 점도 다른 글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sup>10)</sup> 동양 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주역』의 기본 논리도 음양론과 천지인 삼재론에 바탕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태극을 삼태극으로 이해하던 관념은, 송대(宋代) 주렴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 이래로 음양 2기만을 포함하는 음양태극 관념으로 변화된다. 송대 성리학 이후 태극이란 음양으로 분화되는 음양 2기를 내포하고 있는 태극이 되어 버린 것이다.<sup>12)</sup>

### III. ‘빛날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옛 글자 ‘罔’자

한(漢)나라 허신(許慎)의 『설문해자』에 보이는 ‘罔’자의 전서체는 둥그스름한 사각형 안쪽의 좌·우·아래에 곡선을 그려서 분할을 해 놓은 형상이다(<도표 1> 참조). 현재 ‘罔’자는 ‘빛날 경(罔)’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체자(異體字)로 사용되고 있다.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罔’자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의 창문을 열어서 밝은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무릇 ‘밝고 빛나는 것’에 속하는 것들은 ‘罔’자를 따른다. ‘광(獮)’자와 같은 발음으로 읽는다. 가시궤(賈侍中)는 ‘명(明)’자와 같은 발음으로 읽는다고 한다. 窗牖麗廡闔明象形 凡罔之屬

9) 우실하, 앞의 논문(2003), 5~37 쪽 참조

10) 우실하, 앞의 논문(2004c), 205~240 쪽 참조

11) 동양 사상사의 흐름에서 삼재론(三才論)은 『주역(周易)』의 십익(十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중국 사상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주역』은 삼재론과 음양론이 함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64괘의 초효(初爻)와 2효는 지(地), 3효와 4효는 인(人), 5효와 상효(上爻)는 천(天)으로 6효가 천지인의 삼재를 상징하고 있으며, 『주역』 계사(繫辭) 설괘전(說卦傳)에서는 천지인 삼재의 도를 각각 천도(天道)를 음양(陰陽), 지도(地道)를 강유(剛柔), 인도(人道)를 인의(仁義)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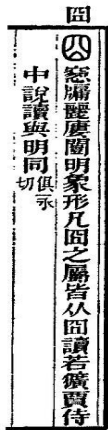
12) 우실하, 앞의 논문(2003), 5~37 쪽 참조

皆從囧。讀若獷。賈侍中說讀與明同。13)

위에 인용한 『설문해자』에서는 ‘囧’자의 모양이 ‘창문을 열어 밝은 모양’을 상형한 것이고, 광(獷) 혹은 명(明)자와 같이 발음한다고 보고 있다.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를 지은 청(淸)의 단옥제(段玉裁)도 이런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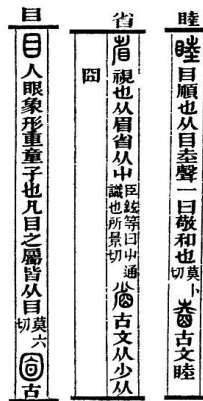
<도표 1>

『설문해자』의 ‘囧’자15)



<도표 2>

『설문해자』의 목(目)·목(睦)·성(省)자16)



그러나 『설문해자』에서는 ‘囧’자가 ‘눈 목(目)’자의 형상이라는 견해도 동시에 보인다. <도표 2>에 소개한 『설문해자』에서 ‘살필 성(省)’자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성(省)자의 고문(古文)을, ‘적을 소(少)’자 아래에 ‘囧’자를 이어놓은 형태로 소개하고 ‘少’와 ‘囧’을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17) 또 ‘화목할 목(睦)’자를 설명한 부분에서도, 목(睦)자의 고문을 ‘목(尗)’자 아래에 ‘囧’자를 이어놓은 형태로 소개하고 있어 ‘囧’자가 ‘目’자 대신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2> 睦 참조).18) 그러나 막상 ‘눈 목(目)’자를 설명한 부분에서 목(目)자의 고문(古文)을 보

13) 許慎, 『說文解字』(北京: 中華書局 1992 영인본), 142 쪽 上

14) 段玉裁, 『說文解字注』(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9 영인본), 314 쪽 下

15) 許慎, 앞의 책, 142 쪽 上

16) 위의 책, 70 쪽 下(目 부분), 72 쪽 上(睦 부분), 74 쪽 上(省 부분)

17) 위의 책, 74 쪽 上

면 ‘罍’자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둥그스름한 사각형(□) 안쪽에 ‘^’ 모양과 ‘◎’ 모양이 아래위로 연결된 모습이다(<도표 2> 目 참조, 19)

『설문해자』의 이런 일관성 없는 설명에 대해서는 단옥재도 비판을 하고 있다. 곧 성(省)자와 목(陸)자에서 허신이 ‘目’자의 고형으로 소개한 ‘罍’자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곧 ‘目’자의 고형은 ‘罍’자가 아니라 ‘□ 안에 ^과 ◎이 아래위로 연결된 모습’의 글자라는 것이다 20)

이런 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단옥재와 허신이 ‘罍’자를 ‘열린 창문’으로 해석한 것은 타당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허신이나 단옥재가 고대의 글자에 대한 책을 쓸 당시에는 한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갑골문’이 발견되기 이전이었으며,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청동기 금문(金文)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갑골문이 새롭게 발견되고 수많은 청동기의 금문(金文)이 발굴된 현재, 고문자 학자들은 허신이나 단옥재의 뛰어난 학술적 성과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지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1200 쪽에 가까운 『고전석원(古篆釋源)』을 편찬한 왕홍력(王弘力)은 책의 편집 후기(編後語)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설문해자』에 존재하는 결함은 역사적 한계의 소치이며, 성현문호(聖賢文豪)라고 할지라도 역시 역사적인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계의 범주는 각기 서로 다르다 21)

수많은 갑골문의 발견과 상·주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의 해독으로, 허신과 단옥재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견해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갑골문과 상대(商代) 부신쟁(父辛鼎)에 보이는 ‘罍’자의 모양을 살펴보자(<도표 3>, <도표 4>, <도표 5> 참조).

18) 위의 책, 72쪽 上

19) 위의 책, 70쪽 下

20) 段玉裁, 앞의 책, 132쪽 下(陸 부분), 136쪽 上(省 부분) 참조.

21) 王弘力(編注), 『古篆釋源』(瀋陽: 遼寧美術出版社, 1998<1997>), 編後語. 이 책은 1156쪽까지의 본문 뒤에, 다시 1~44쪽의 검자표(檢字表)와 편집후기(編後語)로 구성되어 있다.

<도표 3> 갑골문과 상대 부신정(父辛鼎)에 보이는 ‘罔’자<sup>22)</sup>

|     |      |         |    |
|-----|------|---------|----|
| 罔   | 罔    | 罔       | 罔  |
| 甲骨文 | 銅器銘文 | 簡書及其它刻辭 | 秦篆 |

&lt;도표 4&gt;

罔 : ‘빛날 경(罔[giŋ])’자의 원형<sup>23)</sup>

## JIONG 聲符

|     |   |    |                                  |    |  |
|-----|---|----|----------------------------------|----|--|
| ★ 罔 | 罔 | 金文 | 罔                                | 古陶 |  |
|     | 罔 | 說文 | 《說文》:“罔,窓牖屬。罔明,象形。讀若獮,賈侍中說讀與明同。” |    |  |
|     | 罔 | 漢印 |                                  |    |  |

&lt;도표 5&gt;

罔 : ‘밝을 명(明[miŋ])’자의 원형<sup>24)</sup>

|     |   |    |  |
|-----|---|----|--|
| ★ 罔 | 罔 | 罔  | 康釋象獸盟之牛耳。按:與甲骨文盟字所甲骨从相同,可證讀明聲。                               |
|     | 罔 | 說文 | 《說文》:“罔,窗牖屬。罔明;象形。讀若獮,賈侍中說讀與明同。”                             |
|     |   |    | 按:罔讀明 [ miŋ ], 與窗牖之罔 (音獮 [ guǎn ]), 後改罔 [ giŋ ] 二篆形同。今分爲二聲符。 |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罔’자의 갑골문과 금문은, (1) 원 안에 3개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형태와, (2) 원 안에 4개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형태가 있다. 갑골문과 상대 청동기 명문에 보이는 이런 모양의 ‘罔’자가 과연 허신이나 단옥재가 말하듯이 ‘열어 놓은 창문’을 상형한 것일까?

왕홍력(王弘力)은 ‘罔’이 두 갈래의 기원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 한자에서도 두 글자로 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罔’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jiong’으로 발음되는 ‘밝을 경(罔)’자의 원형이라고 본다. <도표 4>을 보면 ‘罔’자의 금문은 <도표 3>에서 본 것과 같이 원 안에 4개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형태다. <도표 4>에서 ‘罔’자의 고도문(古陶文 옛 도기에 새겨진 문자)의 모양은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이 있고 그 둘레를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창문 형상이다. 이런 모양에 근거해서 왕홍력은 ‘밝을 경(罔)’

22) 高明(編), 『古文字類編』(北京: 中華書局 1987), 416쪽 이 책은 한국에서 영인되어 출판되었다  
高明(編), 『古文字類編』(둥문선, 1990).

23) 王弘力(編注), 앞의 책, 583쪽.

24) 위의 책, 583쪽

의 원형인 ‘𠂔’자 모양들을 『설문해자』의 설명을 따라 ‘열어 놓은 창문’을 상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𠂔’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ming’으로 발음되는 ‘밝을 명(明)’자의 원형이라고 본다(<도표 5> 참조). 왕홍력은 ‘𠂔’자가 ‘밝을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공통의 원형이라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𠂔자는 明[míng]으로 읽는데, 창문을 나타내는 罔(음은 獮[guǎng])자와 더불어 후에는 ‘빛날 경(罔[giǎng])’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두 글자(明과 罔을 말함 필자)의 전서체 모양 𠂔을 말함 필자 이 같다 오늘날에는 두 가지 음(明明 과 경罔 필자)으로 분화되었다

按: 𠂔讀明[míng], 與窗闢之罔(音獮[guǎng]), 後改罔[giǎng] 二篆形同. 今分爲二聲符(<도표 5>의 아래 왕홍력의 설명 부분. 25)

그런데 <도표 5>의 설명문을 보면 왕홍력은 ‘밝을 명(明)’자의 옛 글자인 ‘𠂔’자가 ‘소의 귀(牛耳)’를 상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밝을 경(罔)’자의 옛 글자인 ‘𠂔’자를 ‘열어 놓은 창문’이라고 해석한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다. 곧 같은 ‘𠂔’자를 서로 다른 것을 상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왕홍력은 『고문자형발미(古文字形發微)』<sup>26)</sup> 등을 지은 강은(康殷)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강은(康殷)은 희생의 피를 마시며 맹세를 할 때 사용되는 소의 귀를 상형한 것으로 해석한다. 내 생각에, 갑골문 맹(盟)자가 따르는 바와 같으니, 명(明)이라는 소리로 읽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康釋象猷盟之牛耳. 按: 與甲骨文盟字所從相同, 可證讀明聲(<도표 5>의 갑골문 해설문 참조).<sup>27)</sup>

강은과 왕홍력이 말하는 ‘소의 귀’는 도대체 맹(盟)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25) 위의 책, 583쪽. ‘按’으로 표기한 부분은 왕홍력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위의 책, 5쪽).

26) 康殷, 『古文字形發微』(北京 北京出版社, 1990), 777 쪽

27) 王弘力(編注), 앞의 책, 5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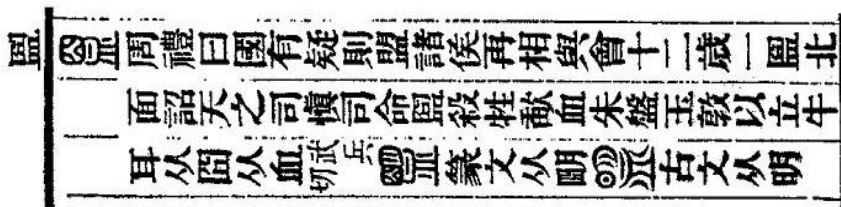


것일까? 『설문해자』에는 맹(盟)자를 설명하면서 『주례(周禮)』에 보이는 아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맹(盟) : 『주례』에 이르기를, 국가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맹(盟)이 행해졌다. 제후들은 3년마다 1번 조(朝)를 행하는데, 두 번째 조(朝)에 회(會)를 행하고, 두 번째 회(會)인 12년에 한 번 맹(盟)이 행해졌다. 북쪽을 바라보고 하늘에 고하는 관리인 신사(愼司: 맹의 의식을 관장하던 시盟을 맡함 필자)가 엄숙하게 맹(盟)을 명하면, 희생을 죽여 피를 마시고 붉은 소반에 올린 옥으로 만든 돈(敦: 고대 제사 시에黍稷을 담던 그릇 필자)에 소의 귀를 세웠다. 罔을 따르고 血을 따른다.

『周禮』曰: 國有疑則盟. 諸侯再相與會十二歲一盟. 北面詔天之司愼司命盟. 殺牲歃血朱盤玉敦以立牛耳. 罔從血(<도표 6> 『설문해자』 맹 참조.<sup>28)</sup>

<도표 6>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이는 맹(盟)<sup>29)</sup>



단옥제는 『설문해자』의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언하고 있다. 곧, 『주례』에 의하면 북쪽을 향하여 ‘밝음의 신(明神)’에게 고하는 사맹(司盟)이라는 관리가 있어서 맹(盟)에 대한 모든 절차를 관장했다. 또 『설문해자』에 보이는 ‘재상여회(再相與會)’ 4자는 ‘재조이회재회(再朝而會再會)’ 6자를 잘못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한다. 『좌전』 소왕(昭王) 13년 기록에 의하면, 조(朝)는 3년마다 제후들을 모아 예(禮)를 강연하는 것이었고 회(會)는 6년마다 제후들을 모아 위세를 보이던 것이었다. 그래서 3년에 1번 조(朝)가 있었고(三年而一朝), 6년(= 再朝)에 1번 회(會)가 있었으며(六年而一會), 12년(= 再會)에 1번 맹(盟)이 있었다(十二年而一盟).

28) 許愼, 앞의 책, 142쪽 上. 해석은 단옥제의 『說文解字注』에서 바로 잡은 부분을 참고하였다.

29) 위의 책, 142쪽 上.

고 한 것이다.<sup>30)</sup>

맹(盟)의 의식에서 ‘소의 귀’를 세웠다는 『주례』와 『설문해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왕홍력은 <도표 6>에 보이는 밝을 명(明)자의 옛 글자인 ‘𡇗’의 갑골문 형태를 ‘소의 귀’를 상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의 귀’를 그려서 ‘밝다, 빛나다’의 의미를 부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본다. 또한 맹(盟)의 의식을 행하면서 ‘밝다, 빛나다’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은 ‘소의 귀’가 아니라 ‘밝음의 신(明神)’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례』와 『설문해자』의 기록을 받아들이더라도, 맹(盟)의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의 피를 마시고 서로 맹세를 하며 ‘밝음의 신’에게 고하는 것이지 ‘소의 귀’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밝을 명(明)자의 옛 글자인 ‘𡇗’자의 갑골문 형태는 ‘밝음의 신(明神)’, ‘천지신명(天地神明)’과 관련된 상징을 상형한 것이라고 본다. 곧, 명(明)자의 옛 글자인 ‘𡇗’자의 갑골문 형태는 ‘소의 귀’ 모양이 아니라 ‘밝은 신(明神)’,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상징인 ‘태양’을 상형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필자의 이런 입장을 명(明)자와 맹(盟)자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 IV. 명(明)자의 변화

<도표 7>에 제시한 『설문해자』에는 명(明)자의 전서체가 ‘𡇗 + 月’의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𡇗 + 月’ 형태인 명(明)자보다 오래된 고문(古文)은 ‘☉ + 月’ 형태라고 소개하고, 이 고문은 ‘日’을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𡇗’과 태양을 상징한 ‘☉’ 혹은 ‘日’이 모두 같은 태양을 상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도표 7> 참조.<sup>31)</sup>)

『설문해자』에서 ‘빛날 경(罔)’자를 설명하면서는 ‘𡇗’자를 ‘열린 창문’ 혹은 ‘소의 귀’라고 설명하더니, 명(明)자의 고문을 설명하면서는 똑같은 ‘𡇗’자를 ‘日’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밝을 명(明)’자는 태양(日)과 달(月)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30) 段玉裁, 앞의 책, 314 下~315 上

31) 許慎, 앞의 책, 141쪽

글자이고, 『설문해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𠄎’자는 ‘日’과 통용되었던 것이다

<도표 8>에 보이는 갑골문과 금문의 명(明)자의 변화를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달(月)의 모양은 갑골문 이래로 큰 변화가 없는데, 태양(日)의 모양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전석원』을 편찬한 왕홍력은 <도표 8>에서 명(明)자의 갑골문을 두 가지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곧, (1) ‘月 + 日’ 형태의 명(明)자에 대해서는 “해와 달의 모양을 상형한 것(象日月之形)”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 ‘月 + 𠄎’ 형태의 명(明)자에 대해서는 『갑골문자전(甲骨文字典)』을 지은 서중서(徐中舒)의 논의를 받아들여 “달빛이 창을 비추는 것을 상형한 것(象月光照窗)”으로 해석하면서, 일(日)의 변형인 ‘𠄎’자를 ‘열린 창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도표 8>의 해설문 참조). 첫 번째 해석은 당연하고 수긍이 간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여전히 『주례』·『설문해자』·『설문해자주』의 설명을 따르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도표 8>과 <도표 9>에 보이는 명(明)자의 변화를 보면 태양을 상형한 일(日)자가 다양한 모양으로 상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明)자와 경(罔)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원 안에 3~4개의 선분이나 C자 모양의 곡선이 그려진 ‘𠄎’자를 해석해 온 견해들을 짚어보자. 첫째, 앞서 소개한 강은(康殷)과 왕홍력처럼 ‘소의 귀’로 해석한다면 명(明)자의 갑골문은 의미가 불명확해진다. 둘째, 서중서와 왕홍력처럼 동일한 명(明)자의 갑골문을 하나는 ‘태양과 달을 상형한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창문’과 달을 상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𠄎’자의 형태에 대한 이런 혼란은 왜 일어난 것인가? 필자는 그 원인은 (1) 『주례』의 내용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갑골문 해석에 끼어 맞춘 때문이고, (2) 허신의 『설문해자』와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의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두 가지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일관성을 지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명(明)자의 시대별 각종 글자를 통해서 보면, ‘빛날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공통 기원인 ‘𠄎’자의 갑골문·금문(金文)·도문(陶文) 등에 보이는 모양은 분명히 ‘밝다, 빛나다, 환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태양’과 연관되어 있다. 명(明)자의 초기 갑골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日 + 月’ 형태와 반대로 된 ‘月 + 日’ 형태가 대

부분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명(明)자의 초기 갑골문이 ‘月 + 日’의 형태가 대부분인 것은 중국의 창세신화인 반고신화(盤古神話)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있다.

반고신화에 의하면 개천벽지(開天闢地)의 신인 반고가 죽자 그의 신체 각 부분이 변하여 천지만물이 만들어진다. 반고의 머리는 4개의 큰 산으로, 지방과 기름진 살은 강과 바다로, 모발(毛髮)은 초목으로 변하였다. 특히 그의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반고신화를 바탕으로 일본학자 수지우라 코헤이(杉浦康平)는 왼쪽 눈이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었다는 반고 신화의 내용이 중국 고대의 갑골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곧 반고의 ‘왼쪽 눈의 위치에 태양을, 오른쪽 눈의 위치에 달을 배치한 것이 갑골문에 보이는 ‘月 + 日’ 형태의 명(明)자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2)</sup>

수지우라 코헤이는 반고신화의 이런 내용이 일본의 신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일본 신화에 의하면, 삼귀자(三貴子)로 알려진 (1) 태양신 천조대신(天照大神), (2) 달신 월독존(月讀尊), (3) 폭풍신 소전명존(素戔鳴尊) 등 3 신의 아버지는 이장락존(伊奘諾尊)<sup>33)</sup>이다. 그런데 신화에 의하면 아버지 이장락존의 왼쪽 눈에서 태양신(天照大神)이 생겨났고, 오른쪽 눈에서 달신(月讀尊)이 생겨났고, 콧바람(鼻息)에서 폭풍신(素戔鳴尊)이 태어났다고 한다.<sup>34)</sup>

수지우라 코헤이는 반고신화를 토대로 갑골문 초기의 명(明)자가 ‘月 + 日’의 형태로 그려진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도표 10>는 『삼재도화(三才圖會)』에 보이는 반고씨(盤古氏)의 그림에, 왼쪽 눈에 태양을 오른쪽 눈에 달을 배치하여 수지우라 코헤이가 재구성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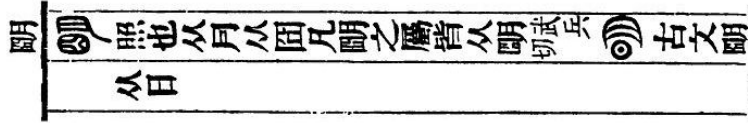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명(明)자의 갑골문과 금문 등에 보이는 ‘𠄎 과 ‘☉ 혹은 ‘日’이 모두 태양을 상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2) 杉浦康平(著), 李建華·楊晶(譯), 『造型의誕生』(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9), 17~18쪽.

33) 『고사기(古事記)』에서는 伊奘諾尊이 伊邪那岐命으로, 그의 부인은 伊邪那美命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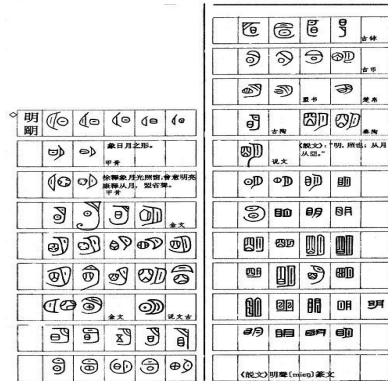
34) 杉浦康平, 앞의 책, 18~19쪽.

<도표 7> 『설문해자』에서의 ‘명(明)’<sup>35)</sup>



<도표 8>

‘명(明)’자의 변화(양홍력, 『고전석원』)<sup>36)</sup>



<도표 9>

‘명(明)’자의 변화(고명, 『고문자류편』)<sup>37)</sup>



<도표 10>

반고신화와 ‘月+日’형태의 ‘明’자: 오른쪽 눈=달, 왼쪽 눈=태양<sup>38)</sup>



35) 許慎, 앞의 책, 141쪽.

36) 王弘力(編注), 앞의 책, 583쪽.

37) 高明(編), 앞의 책, 496쪽.

38) 杉浦康平, 앞의 책, 17쪽(그림), 18쪽(글씨).

## V. 맹(盟)자의 변화

맹(盟)이란 12년에 한 번씩 제후들을 모아 놓고 사맹(司盟)이라는 관리의 주도 아래 희생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밝음의 신(明神)’, ‘천지신명(天地神明)’께 새로운 결의를 고하던 의식이었다. 희생 동물의 피를 잔에 담아 함께 돌아가며 마셨기 때문에, ‘그릇 명(皿)’자에 피를 상징하는 점 모양이 합쳐지면서 ‘피 혈(血)’자가 된 것이다.

<도표 11>에 보이는 명(皿)자의 갑골문은 굽이 높은 그릇 형상이고, <도표 12>에 보이는 혈(血)자의 갑골문은 그릇 안에 피가 담긴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릇 위나 안에 작은 원이나 점 혹은 ‘一’자 형이 덧그려진 형상이다. 그리고 <도표 13>, <도표 14>에 보이는 맹(盟)자에서는 ‘그릇 명(皿)’자와 ‘피 혈(血)’자가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맹(盟)자는 ‘그릇 명(皿)’자 위에 ‘밝을 명(明)’자가 올라간 형태이다.

&lt;도표 11&gt;

‘그릇 명(皿)’자의 변화.

(왕홍력, 『고전석원』)39)

|   |  |                |                     |  |    |
|---|--|----------------|---------------------|--|----|
| 皿 |  |                |                     |  |    |
|   |  |                | 象飯食容器之形<br>按:實爲皿之剖面 |  |    |
|   |  |                | 金文                  |  | 楚簡 |
|   |  |                | 古幣                  |  | 古陶 |
|   |  |                | 說文                  |  |    |
|   |  | 正音讀 ming       |                     |  |    |
|   |  | 《說文》皿聲(mien)篆文 |                     |  |    |

&lt;도표 12&gt;

‘피 혈(血)’자의 변화.

(왕홍력, 『고전석원』)40)

|    |  |                |                          |        |  |
|----|--|----------------|--------------------------|--------|--|
| ★血 |  |                |                          | 象血滴入皿形 |  |
|    |  |                | 甲骨                       |        |  |
|    |  | 古陶             | 金文                       |        |  |
|    |  | 說文             | 《說文》:“血,祭所屬牲血也。从皿,一象血形。” |        |  |
|    |  |                |                          |        |  |
|    |  |                |                          |        |  |
|    |  | 《說文》血聲(xyet)篆文 |                          |        |  |

『설문해자』에서는 『주례』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맹(盟)자의 모습이 그릇(皿) 위에 ‘소의 귀’를 상형한 ‘𩚑’자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도표 6>참

39) 王弘力(編注), 앞의 책, 581쪽.

40) 위의 책, 905쪽

조), 그러나 <도표 13>와 <도표 14>에 보이는 맹(盟)자의 갑골문에서 그릇 위에 올라간 ‘𠂔’자 모양을 모두 ‘소의 귀’로 해석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그릇 위에 ‘日 + 月’자 형태의 명(明)자가 올라간 형태에서 월(月)과 조합된 ‘𠂔’자를 모두 ‘소의 귀’로 보면, ‘소의 귀’와 ‘달(月)’이 올라가 있는 것이 된다. ‘소의 귀’와 ‘달(月)’이 왜 같이 올려지는 것인가?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의미도 통하지 않는다.

둘째, 월(月)과 조합된 ‘𠂔’자 모양을 ‘소의 귀’로 보지 않고 ‘열린 창문’으로 보아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표 14>에서 보이는 초기 갑골문에서는 그릇(皿) 위에 ‘열린 창문(𠂔)’만이 올라가 있다 12년마다 행해지는 맹(盟)의 행사에서 그릇 안에 ‘창문’을 올려놓았던 말인가?

결국 맹(盟)자의 갑골문에서 보이는 원 안에 3~4개의 선분이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형태의 ‘𠂔’자를 ‘소의 귀’나 ‘열린 창문’으로 해석할 때에는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의미도 통하지 않게 된다. ‘밝을 경(罔)’ · ‘밝을 명(明)’ · ‘맹세할 맹(盟)’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모두 보이는 ‘𠂔’자의 형태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없는가?

<도표 13>

맹(盟)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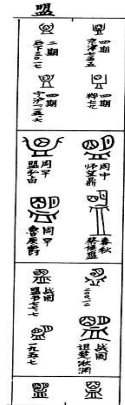
(왕홍력, 『고전석원』)<sup>41)</sup>



<도표 14>

맹(盟)자의 변화.

(고명, 『고문자류편』)<sup>42)</sup>



41) 위의 책, 584쪽

필자는 맹(盟)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𠄎’자 형상이 『주례』나 『설문해자』에서 ‘밝음의 신(明神)’으로 기록된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1) 경(罔)·명(明)에서 ‘밝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태양이고, (2) 맹(盟)의 의식에서도 희생의 피를 잔에 담아 돌려 마시면서 ‘밝음의 신(明神)’께 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맹(盟)자의 갑골문에 보이는 그릇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천지신명을 상징하는 빛나는 태양이라고 본다면, 갑골문 이후에 태양과 달이 합쳐진 명(明)자가 그 자리에 대신 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서 경(罔)자와 명(明)자의 갑골문과 금문에서 보이는 ‘𠄎’자의 해석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상충되는 해석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 VI. 태양을 상징하는 ‘日’과 ‘𠄎’의 차이

‘명(明)’자의 갑골문에서 태양을 나타내는 ‘일(日)’은, (1) 원 속에 점을 찍은 ‘☉’자 형태, (2) 원의 안쪽에 3개의 폐곡선이나 삼각형 모양이 그려진 형태, (3) 원의 안쪽에 3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형태가 함께 사용되었다. <도표 8>에서는 5개 직선이 원의 안쪽에 그려진 형태도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보면, 갑골문 시대부터 태양을 상형할 때 ‘日’자 모양과 ‘𠄎’자 모양을 모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도표 8>과 <도표 9> 참조).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 명(明)자에서도, (1) 원 속에 점을 찍은 일반적인 ‘☉’자 형태, (2) 원의 안쪽에 3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을 그린 형태 (3) 원 안쪽을 ‘Y’자 형으로 삼등분 한 형태, (4) 원 안쪽을 ‘十’자 형으로 사등분 한 형태 (5) 2개의 폐곡선으로 원을 삼등분한 ‘사(四)’자 형태, (6) 3개의 폐곡선을 원 안쪽에 그린 ‘경(罔)’자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원 안쪽을 분할하고 있다(<도표 8>과 <도표 9> 참조).

명(明)자에 보이는 이런 특징들은 <도표 13>·<도표 14>에 보이는 맹(盟)자

42) 高明(編), 앞의 책, 3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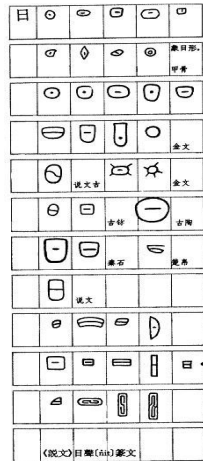


의 갑골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곧 맹(盟)자의 갑골문에서 그릇(皿) 위에 올라간 태양 상징에서도 여러 형태의 일(日)자 모양이 보인다. 태양의 형태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 안에 3개의 직선이 그려진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명(明)·맹(盟)의 갑골문이나 금문에 보이는 태양을 나타내는 원 속에 다양한 형태의 선이 그려진 것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전서체 명(明)자에서는 태양을 나타내는 일(日)은 일반적으로 ‘罙’자 형태가 사용된다. 태양을 나타내는 원 안쪽은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고 분할되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원 안에 3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이 그려져 있는 모양이다. 이런 형태들은 태양 속에 있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태양 자체를 나타내는 ‘일(日)’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도표 15> 일(日)자의 변화

(왕홍력, 『고전석원』)<sup>43)</sup>



<도표 15>에 보이는 태양을 상형한 글자인 일(日)자의 변화를 보면 (1) 태양의 안쪽에 1개의 점이나 선이 그려지거나, (2) 태양의 바깥쪽으로 빛이 방사되는 형태로 그려진다. 태양 자체를 상형한 일(日)자의 옛 글자들에서는 명(明)자의 옛 글자에서 보이는, 원 안에 3~4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을 그린 ‘罙’자 모양이 하나

43) 王弘力(編注), 앞의 책, 690쪽.

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𣎵’자 형태의 태양과 ‘日’자 형태의 태양이 명(明)자나 맹(盟)자에서 혼용되고 있긴 하지만, 처음 갑골문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태양의 서로 다른 특징을 상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태양을 ‘日’자 모양으로 상형한 것과 ‘𣎵’자 모양으로 상형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필자는 ‘𣎵’자 형태의 태양에 보이는 원 안쪽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들은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다고 본다. ‘태양 자체를 나타내는 글자인 ‘日’자와, ‘태양 속의 불꽃’을 상형한 글자인 ‘𣎵’자가 처음에는 구별되어 사용되었다고 본다.

즉, ‘𣎵’자는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고, 그것은 ‘밝다, 빛나다, 환하다’ 등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비해서 ‘日’자는 ‘태양 자체를 상형한 것’으로, 그것은 ‘빛, 불빛, 햇빛’ 등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필자의 입장을 논증하기 위해 ‘밝다·빛나다·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와 ‘빛·불빛·햇빛’의 의미를 지닌 한자들을 비교해 보자.<sup>44)</sup>

#### 1. ‘밝다, 빛나다, 환하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들

‘밝다·빛나다·환하다’는 의미는 곧 바로 ‘태양 자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을 만들어 내는 ‘불(火)’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태양은 ‘빛’을 만들어내는 여러 불(火) 가운데 ‘가장 큰 불(火)’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밝다·빛나다·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들은 모두 불(火)이나 ‘가장 큰 불’인 태양(日)을 부수로 하고 있다. 먼저 ‘밝다·빛나다·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글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불(火)을 부수로 한 것 : 불빛 환할 광(燭), 빛날 경(曠), 빛날 경(耿), 빛날 경(熒), 빛날 경(頌), 밝을 경(曠), 밝을 경(曠), 밝을 당(燭), 밝을 랑(煒), 불빛 령(燐), 밝을 병(炳), 빛날 식(燐), 밝을 소(燐), 빛날 오(燐), 빛날 오(燐), 빛날 육(燐), 밝을 음(熒), 밝을 작(燐), 빛날 정(炅), 빛날 현(炫), 빛날 형(炯), 빛날 혼

44) 여기에서 예를 든 여러 한자들은 <한글 2002>에 들어있는 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焜) 등.

둘째, 태양(日)을 부수로 한 것 : 밝을 경(矚), 빛날 계(矚), 밝을 광(矚), 밝을 교(矚), 밝을 교(矚), 밝을 금(矚), 밝을 단(矚), 밝을 뚝(矚), 밝을 료(矚), 밝을 병(矚), 밝을 석(矚), 밝을 성(矚), 밝을 소(矚), 빛날 엽(矚), 밝을 오(矚), 빛날 옥(矚), 밝을 적(矚), 밝을 정(矚), 밝을 준(矚), 밝을 창(矚), 밝을 탄(矚), 밝을 향(矚), 밝을 호(矚), 밝을 확(矚), 빛날 황(矚), 밝을 환(矚) 등.

위의 한자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밝다·빛나다·환하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들은 불(火)이나 태양(日)을 부수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것은 태양(日)과 불(火)이 조합된 ‘빛날 경(矚)’자의 경우, 부수가 일(日)이 아니라 화(火)라는 점이다(火부의 4획). 이것은 ‘빛나다·밝다·환하다’라는 의미의 중심이 ‘태양(日)’보다는 ‘불(火)’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태양(日)은 여러 불(火)들 가운데 ‘가장 큰 불(火)’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밝다·빛나다·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밝을 명(明)’자와 ‘빛날 경(矚)’자의 공통의 옛 글자인 ‘罙’자도 불 가운데 가장 큰 불인 태양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면 경(矚)·명(明)·맹(盟)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원 속에 3~4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罙’자는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빛·불빛·햇빛’의 의미를 지닌 한자들

‘빛’은 크게 ‘불빛’과 ‘햇빛’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빛’을 나타내는 한자는 불(火)을 부수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빛인 ‘햇빛’을 나타내는 한자들은 태양(日)을 부수로 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불빛’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불(火)을 부수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빛 고(熨)’자에는 태양(日)의 상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글자는 ‘불빛’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화(火)부의 8획으로 되어 있다. 기타 몇몇 글자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
|---------------------|---------------------|
| 줄(爄) : 불빛 줄 불빛 빛나다  | 광(糞) : 불빛 광: 불빛, 빛. |
| 양(殃) : 불빛 양: 불빛, 빛. | 홀(恤) : 불빛 홀: 불빛, 빛  |
| 희(煇) : 불빛 희: 불빛     | 연(燄) : 불빛 연: 불빛     |
| 결(焔) : 불빛 결: 불빛     | 고(熨) : 불빛 고: 불빛     |

둘째, ‘햇빛’을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태양(日)을 부수로 하고 있다. 태양(日)을 부수로 가진 글자 가운데 ‘햇빛’이 아니라 ‘불빛’을 의미하는 글자는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                     |
|-------------------------|---------------------|
| 경(景) : 햇볕 경: 햇볕, 햇살, 햇빛 | 분(昀) : 햇빛 분: 햇빛.    |
| 유(瞞) : 햇빛 유: 햇빛.        | 윤(昀) : 햇빛 윤: 햇빛.    |
| 위(暉) : 햇빛 위: 햇빛, 빛, 햇살  | 현(睞) : 햇살 현: 햇살, 햇빛 |
| 휘(暉) : 빛 휘: 빛, 햇빛       | 희(曦) : 햇빛 희: 햇빛, 일광 |

셋째, 불(火)을 부수로 하는 글자 가운데 일부는 햇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빛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글자인 ‘빛 광 光’ 자는 본래 ‘불빛’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빛 광(光)’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 머리 위에 불(火)이 올라가 있는 형상이다(<도표 16> 참조). 그러나 현재는 ‘불빛’과 ‘햇빛’에 두루 사용된다. 이외에도 불(火)을 부수로 하면서 불빛과 햇빛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                   |
|-------------------|-------------------|
| 괴(焔) : 빛 괴: 빛, 햇빛 | 광(光) : 빛 광: 빛, 햇빛 |
| 희(熾) : 불 희: 불, 햇빛 |                   |

위의 예를 통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불빛’을 의미하는 한자들은 불(火)과 연결되어 있고, ‘햇빛’과 연결된 한자만이 태양(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괴(焔), 광(光), 희(熾)처럼 ‘불빛’을 나타내는 글자가 ‘햇빛’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결국 경(岡)·명(明)·맹(盟)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원 속에 3~4개의 선이나 C자형 곡선이 그려진 㐁자 형상’은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㐁’자 모양은 ‘태양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다

한자에서 ‘빛’은 불(火)을 부수로 하는 ‘불빛’과 태양(日)을 부수로 하는 ‘햇빛’의 개념으로 나뉜다. 그래서 ‘빛나다·밝다·환하다’는 의미도 불(火)을 부수로 하는 글자와 태양(日)을 부수로 하는 글자로 나뉜다. 그런데 ‘밝음’을 가져오는 근원은 불(火)이다. 태양은 가장 큰 불(火)이며, 가장 큰 밝음을 가져오는 신성한 ‘밝음의 신(明神)’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이라는 ‘불(火)은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고대 사회에서 12년마다 맹(盟)이 행해질 때 ‘밝음의 신(明神)’에게 고했다고 한다 이때의 ‘밝은 신’ 혹은 ‘밝음의 신’은 태양이다. ‘밝음’은 ‘태양의 불’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盟)자의 갑골문에서는 그릇(皿) 위에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것은 경(岡)·명(明)·맹(盟)자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㐁’자 모양이 태양의 또 다른 상형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日’자와 ‘㐁’자는 모두 태양을 상형한 글자였다. 그래서 갑골문과 금문의 명(明)자·맹(盟)자 등에 보이는 태양 상징에서는 ‘日’자와 ‘㐁’자가 혼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日’자의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㐁’자 형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日’자와 ‘㐁’자가 모두 태양을 상형한 것이지만 초기에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곧 ‘日’자는 태양 자체를 상형한 것이고, ‘㐁’자는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의 불꽃’을 상형한 것이었다.

‘명(明)’자나 ‘경(岡)’자가 의미하는 ‘밝음’을 가져다주는 ‘태양의 불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明)’자와 ‘경(岡)’자의 원형인 ‘㐁’자는 ‘원 안에 3~4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을 그려서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맹(盟)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서 보면, (1) ‘태양 자체’를 상형할 때에는 원 안에 점을 하나 찍어서 표현했고, (2) ‘태양 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나타낼 때는 원 안쪽으로

3~4개의 선이나 C자형 곡선을 그려서 ‘밝다, 빛나다’의 의미를 지니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罔’자 모양의 태양 상징에서 ‘원 안에 3~4 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을 그려 넣은 것은 ‘태양 속에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VII. 글을 맺으며: ‘罔’자 형태의 태양상징은 파문(巴紋) · 와문(渦紋) · 삼태극(三太極) 문양의 기원이다

명(明)자와 맹(盟)자의 변화에서 보면, 원 안에 3~4 개의 직선이나 C자형 곡선이 들어가 있는 태양 형상이 많이 보인다. 대부분은 3개의 선이나 3개의 C자형 곡선이 들어가 있다. 이런 ‘罔’자 모양의 태양의 불꽃 상징은, 나중에 파문(巴紋) 혹은 와문(渦紋)이라고 불리는 문양으로 이어진다. 파문 혹은 와문은 C자형 곡선의 수에 따라서 3파문, 4파문, 5파문 등으로 불린다. 필자는 각종 파문 혹은 와문은 태양의 불꽃을 상형한 ‘罔’자형 태양 상징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중국의 문양학자 이조정(李祖定)은 『중국전통길상도안(中國傳統吉祥圖案)』에서 파문 혹은 와문을 ‘경문(罔紋)’이라고 이름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동기 문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원형의 기하학적 도안으로, 하나의 원 속에 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양과 비슷한 문양이 있어서 와문(渦紋)이라고도 부른다. 이 문양의 구조는 금문(金文) 가운데 ‘명(明)’자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한다. 경(罔)자는 빛(光)의 의미이고 빛(光)은 반드시 불(火)에서부터 발생한다. 옛 기록에 “불은 둥근 형태로 그린다(火以圓)”는 기록이 있다. 소위 경문(罔紋)은 실제로 일군의 불의 형상이다. 이 문양은 상·주 시대에 시작되어 한나라 때에 성행하였다.

罔紋: 青銅器紋飾之一. 它是圓形的幾何圖案, 在一個圓面上飾類似水渦綫條狀的紋樣, 也稱渦紋. 此紋樣結構與金文中的明字結構完全相同. 罔即光的意思, 而光必發自火. 古時記載有“火以圓”, 所以罔紋實際上是一團火的形象. 它始於商周, 盛行於漢代.<sup>46)</sup>

일반적으로 파문 혹은 외문으로 불리는 이 문양을 경문으로 해석한 이조정의 이러한 견해는, 앞서 필자가 논의한 것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는 “경문(罔紋)은 실제로 일군의 불의 형상이다”고만 하였을 뿐이고, 이것을 태양의 상징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조정이 말하는 경문(罔紋)의 원속에서 C자형 곡선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도는 모양을 ‘태양 속에 소용돌이치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중국학자 고대륜(高大倫)·채중민(蔡中民)·이영복(李映福)이 공동으로 편찬한 『중국문물감상사전(中國文物鑑賞辭典)』에서도, 원 안에 C형 곡선이 그려진 ‘罔’자 형태를 원와문(圓渦紋)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불꽃 문양(火紋)’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1974년 호북성 황피현(黃陂縣) 반응성(盤龍城)에서 출토된 상대 전기의 술잔인 ‘도찬원와문기(饗餐圓渦紋罍)’에 보이는 6개의 원와문(圓渦紋)을 소개하고 있다. 이 원와문 내부에는 중앙에 작은 원이 있고 원 주위에 6개의 C자형 곡선이 둘러져 있는데, 이 원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와문의 문양 구조와 금문 가운데 명(明)자가 따른다는 경(罔)자의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 경(罔)의 의미는 빛(光)이고, 빛은 불(火)로부터 발생한다. 원와문이라는 것은 대개 일군의 불의 형상이며, 바로 불꽃 문양(火紋)이다. 『고공기(考工記)』에서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곳에서는 ‘불은 둥근 형태로 그린다(火以圓)’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불의 도상(圖像)은 둥근 것으로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罍)는 따뜻한 술을 담는 그릇이며, 그 그릇 위에 원와문을 장식한 것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圓渦紋的紋飾結構與金文中明字所從的罔字結構完全相同. 罔的意思是光 光發自火, 所以圓渦紋大概是一團火的形象, 也就是火紋. 『考工記』記載畫績之事有 ‘火以圓’, 意思是火的圖像可用圓來表示, 可能也就是指 這類紋飾 罍爲溫酒器 其上飾圓渦紋, 可謂寓意深刻.<sup>47)</sup>

46) 李祖定(主編), 『中國傳統吉祥圖案』(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94<1989>), 100 쪽 이 책에서는 ‘火以圓’이 ‘火似圓’으로 오타가 나서 원문을 확인하여 바로 잡았다. 원문이란 『周禮』 「冬官·古工記」를 말한다.

47) 高大倫·蔡中民·李映福(主編), 『中國文物鑑賞辭典』(廣西桂林: 漓江出版社, 1997<1991>), 106 쪽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도 ‘㐁’자 문양을 ‘불꽃 문양(火紋)’으로만 볼뿐 이것을 태양의 상징들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가(罍)는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따뜻하게 덥히던 온주기(溫酒器)로 반용성(盤龍城)에서 출토된 것은 높이가 30.1cm나 되는 것이다. ‘가’는 상대에 많이 보이지만 서주시대에 와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의 크기로 보아서는 3개의 다리 사이에 술을 넣어 술을 직접 데웠을 것으로 보인다. 모양이 비슷하지만 높이 10cm 내외의 술잔인 작(爵)과는 다르다. 위에서 소개한 가(罍)의 꼭대기로 돌출된 2개의 기둥 윗면에도 원와문이 그려져 있다(<도표 17> 참조).

또, 상대(商代)에 술을 담아 두던 술독인 퇴(鬯)의 몸체에도 불꽃을 상징하는 원안에 C자형 곡선이 5개가 그려진 원와문이 여러 개 보인다(<도표 18>). 이 외에도 각종 청동 제기의 몸체에는 수많은 와문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제사 음식이나 술을 따뜻하게 덥힌다는 의미에서 ‘태양의 불꽃 문양’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문·와문·경문은 <도표 19>에 제시한 상대 청동기에 보이는 소위 삼파문(三巴紋)이라고 부르는 모양으로 변형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삼태극(三太極) 혹은 삼원태극(三元太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조사한 가장 이른 시기인 상대(商代)의 삼파문 자료들이다. 또한 <도표 20>은 상대 후기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옥기에 보이는 문양으로 앞서 살펴본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문양과 같은 모양이다.

<도표 21>에 보이는 동주·춘추 시대의 다양한 삼파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삼태극 모양과 거의 유사한 모양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들이다. 이런 형태의 삼파문은 상·주·춘추·전국시대를 거쳐서 진·한 시대까지 대단히 많이 보이지만 한대 이후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소위 파문·와문·경문 등으로 불리는 형태들 가운데 3파문의 형태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삼태극/삼원태극 문양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물론 초기의 삼파문은 ‘태양 속에 떠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으로 아무런 철학적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삼파문은 후대에 우리나라에서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철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조선 성리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퇴계를 모신 도산서원에도 이 삼태극 문양이 3개 그려져 있고, 성리학을 가르쳤던 수많은 향교와 서원의 정문에도 이 삼태극이 그려져 있다(<도표 22> 참조. 48)

송대 성리학 이전에는 태극이라는 것이 천지인 삼기를 함유한 삼태극 혹은 삼원태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점은 이미 필자가 다른 논문을 통해서 상세히 논증한 바 있다.<sup>49)</sup> 아마도 조선시대 학자들은 고대 삼태극의 논리와 성리학의 음양태극의 논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의 저서 안에서 태극은 철저히 성리학의 논리에 따라 해석되었을 뿐이다. 중국과 한국의 성리학자들의 태극 논쟁 어디에도 태극을 삼태극으로 이해하는 것은 없다.<sup>50)</sup>

조선시대의 학자들 가운데 태극을 천지인 3기를 함유한 삼태극으로 이해한 사람을 아직은 찾을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삼태극 문양은 천지인 삼재론과 연결된 철학적 상징을 얻게 되었고, 현재는 각종 민족종교나 사회단체 등에서 삼재론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삼과문이 철학적 상징을 얻어 삼태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서 밝혀볼 것이다.

#### <도표 17>

상(商) 전기(前期) 가(罍)에 보이는 원와문(圓渦紋)<sup>51)</sup>



48) 필자는 조선 시대에는 이미 삼과문이 철학적 의미를 부여받아 삼태극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논문을 준비할 것이다 <도표22>에서는 몇몇 서원과 향교의 사진을 올리지만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상·주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각종 삼과문·삼태극 관련 자료들은 필자가 많이 소장하고 있고, 별도의 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49) 우실하, 앞의 논문(2003), 5~37 쪽

50) 중국에서는 주자(朱子)와 육사산(陸棲山), 육상산(陸象山) 형제와의 ‘주·육태극론변(朱陸太極論辨)’으로 시작되어 계속해서 이어졌다(임현규, 「주·육태극론변(陸太極論辨)과 형이상학」, 『한국철학논집』, 제17집(2005), 369~398쪽, 소현성, 「주희와 육구연 형제의 태극논변」, 『동양철학』, 제24권(2005), 93~120쪽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과 망기당(忘機堂) 조한보(曹漢輔, 생몰연 미상)의 논쟁에서 시작되어 퇴계와 율곡을 거쳐 후대에까지 이어진다(임현규, 「사암(思庵), 율곡 태극논변과 율곡의 태극론」, 『한국사상과 문화』, 제29집(2005), 169~196쪽, 장윤수, 「한국 성리학에서 ‘무극태극’ 논쟁」, 『철학연구』, 제61집(1997), 169~188쪽).

51) 高大倫·蔡中民·李映福(主編), 앞의 책, 106쪽.

<도표 18> 상(商代) 뇌(鼎)에 보이는 원와문(圓渦紋)<sup>52)</sup>



<도표 19> 상대(商代) 청동기에 보이는 삼파문(三巴紋)<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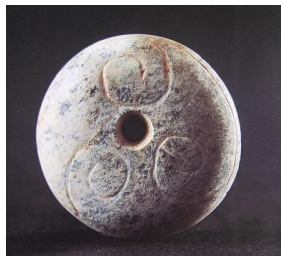
19-1



19-2



<도표 20> 상대 후기 은허(殷墟) 출토 옥기에 보이는 삼파문<sup>54)</sup>



52) 田自秉・吳淑生(編), 『中國工藝美術史圖錄(上)』(上海: 人民美術出版社, 1994), 17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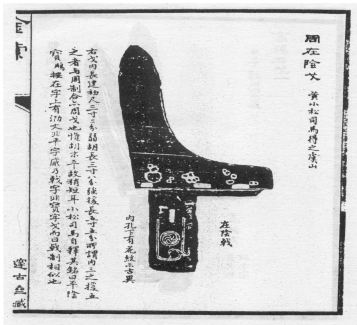
53) 謝海元・顧望, 『中國青銅圖典』(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9), 19-1은 619쪽, 19-2는 621쪽.

5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安陽殷墟出土玉器』(北京: 科學出版社, 2005), 156 쪽

<도표 21> 주·춘추 시대의 다양한 삼파문  
21-1 동주(東周) 시대 비봉문(飛鳳紋)에 보이는 삼파문<sup>55)</sup>



21-2 주대(周代) 창인 과(戈)에 보이는 삼파문 상세도<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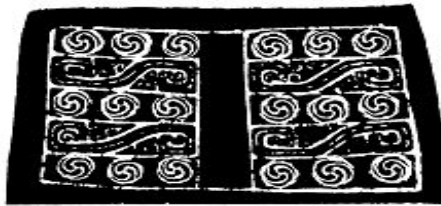
55) 謝崇安, 『商周藝術』(成都: 巴蜀書社出版, 1997), 책머리 도판

56) 馮雲鵬·馮雲鶴, 『金石索』(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영인본), 上卷, 195쪽, 우실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소나무, 1998), 285쪽 <도표 7-8>. 『金石索』은 청나라 때 풍운봉(馮雲鵬)과 풍운원(馮雲鶴)이 편집한 것으로 당시까지 수집된 금문(金文)과 석문(石文: 비석 등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 등) 등을 집대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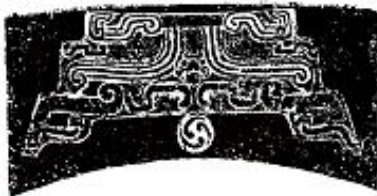
21-3 주대(周代) 초(楚)나라의 생(笙)에 보이는 삼파문 변형문<sup>57)</sup>



21-4 춘추시대 큰 종인 박(搏)에 보이는 삼파문<sup>58)</sup>



21-5 춘추시대 종(鐘)에 보이는 삼파문<sup>59)</sup>



57) 三浦康平, 앞의 책, 82쪽.

58) 謝海元·顧望, 앞의 책, 620쪽.

59) 위의 책, 108쪽(좌), 612쪽(우).

<도표 22> 서원과 향교 건물에 보이는 삼태극  
22-1 도산서원(陶山書院) 내삼문(보물211호, 경북 안동)



22-2 합호서원(合湖書院)(문화재자료 41호, 충남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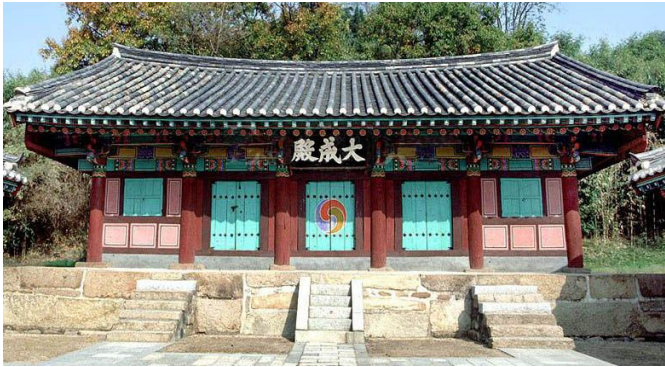


22-3 단성향교(丹城鄉校)(시도유형문화재 88호, 경남 산청군)





21-4. 동래향교(東萊鄉校) (시도유형문화재 6호, 부산시 동래구)



22-5 이천향교(利川鄉校)(문화재자료 22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 참고문헌

- 권오엽(역주), 『고사기(古事記)』(상·중·하),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0~2001.
- 소현성, 「주희와 육구연 형제의 태극논변」, 『동양철학』 제24 권, 2005, 93~120 쪽
- 우실하, 「도교와 민족종교에 보이는 ‘3수 분화’의 세계관」, 『도교문화연구』 제24 집, 2006, 99~133 쪽
- 우실하,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 삼태극의 춤, 동양음악』, 서울 소나무, 2004a.
- 우실하, 「삼태극의 논리와 5音 12律의 산울 수리(數理) 체계」, 『한국음악사학보』 제2 집, 2004b, 73~113쪽.
- 우실하, 「동북아 성수(聖數: 3, 7, 9, 81)의 기원에 대하여」, 『단군학연구』 제0 집, 2004c, 205~240 쪽

우실하, 「최초의 태극 관념은 음양태극이 아니라 삼태극 삼원태극이었다」 『동양사회사상』 제8집 2003, 5~37쪽.

우실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서울: 소나무, 1998.

임현규, 「사암(思庵), 율곡 태극논변과 율곡의 태극론」. 『한국사상과 문화』 제29집 2005, 169~196쪽.

임현규, 「주, 육태극논변(陸太極論辨)과 형이상학」. 『한국철학논집』 제7집 2005, 369~398쪽.

장운수, 「한국 성리학에서 ‘무극태극’ 논쟁」. 『철학연구』 제61집, 1997, 169~188쪽.

지재희·이준령(역해), 『주례(周禮)』. 서울: 자유문고, 2002.

康殷, 『古文字形發微』. 北京: 北京出版社, 1990.

高大倫·蔡中民·李映福(主編), 『中國文物鑑賞辭典』. 廣西桂林: 灕江出版社, 1997.

高明(編), 『古文字類編』. 北京: 中華書局, 1987.

段玉裁, 『說文解字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9.

班固(著), 顏師古(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2.

謝崇安, 『商周藝術』. 成都: 巴蜀書社出版, 1997.

杉浦康平(著), 李建華·楊晶(譯), 『造型의 誕生』.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9.

謝海元·顧望, 『中國青銅圖典』.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9.

王弘力(編注), 『古篆釋源』. 瀋陽: 遼寧美術出版社, 1998.

李祖定(主編), 『中國傳統吉祥圖案』.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94.

田自秉·吳淑生(編), 『中國工藝美術史圖錄(上)』. 上海: 人民美術出版社, 1994.

馮雲鵬·馮雲鵬, 『金石索』.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92.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2.

## 국문 요약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罔’자는 ‘빛날 경(罔)’자와 ‘밝을 명(明)’자의 옛 글자이다. 그러나 이 ‘罔’자가 무엇을 상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 달빛이 비치는 ‘열린 창문’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둘째, 12년 마다 제후들을 모아 ‘밝음의 신(明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맹(盟)이라는 행사에서 제단에 올려졌던 ‘소의 귀’를 상형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셋째, 빛을 발산하는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 글에서는 ‘罙’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罙)·명(明)·맹(盟)·일(日) 등의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이들 글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위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밝을 𣎵(罙)자와 밝을 明(明)자의 공통 기원인 ‘罙’자가 태양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밝다·빛나다·환하다’는 의미의 ‘罙’자는 ‘빛’을 발생시키는 ‘불(火)’ 곧 ‘태양 속에 소용돌이치며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한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보면, (1) ‘罙’자의 갑골문과 금문에서 보이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 안에 3~4개의 선이나 C자형 곡선이 둘러져 있는 罙자 형상’에서 각종 파문(巴紋)이 발생하였고, (2) 이런 파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원 안에 3개의 선이나 3개의 C자형 곡선이 둘러져 있는 罙자 형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삼태극(三太極) 혹은 삼원태극(三元太極)의 초기 형상이 기원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 투고일 : 2006. 3. 13.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keyword) : 태극 (Taegŭk : 太極), 음양태극 (Yin-yang Taegŭk : 陰陽太極), 삼태극 (Sam Taegŭk : 三太極), 삼원태극 (Sam-won Taegŭk : 三元太極), 샤머니즘 (shamanism)